

# 협력은 기적을 낳는다

박 경 수

옛부터 대한팔경의 하나요 제2금강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전국 제일의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받은 속리산국립공원은 해발 1500m의 천황봉을 주봉으로하여 비로봉 입석대, 역사의 인물인 임경업장군이 수도 한곳이라하여 불허진 경업대, 신선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생전에 세번을 다녀가야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서려있는 문장대, 묘봉등이 그 자태를 자랑하며 병풍처럼 둘러쳐져있어 기후가 온화하고 우순풍조하여 영농이 순조롭고 인심이 순박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더구나 속리산에는 수령이 수백년되는 울창한 산림과 기암괴석 그리고 동식물이 7백여종이나 서식하고 있어 뜻있는 강호제현들이나 이것을 연구하려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불교문화가 꽃피었던 신라시대에 창건된 제5교구본사 범주사를 비롯해서 조선조 세조대황이 물맛이 좋아 이름지은 복천암을 비롯한 수많은 암자가 있어 선남선녀의 신도들과 탐방객들이 끊이지 않아 이곳도 관광개발의 봄에 힘입어 온천개발이 전개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장족의 발전이 기약되는 희망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속리산국립공원도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탐방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는 산골짜기마다 쌓여가고 있어 골치거리인것이 사실이었다.

여기서 이 고장의 뜻있는 이들이 한데 모여 내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나를 버리고 희생하듯이 우리고장을 위해서 한알의 밀알이 되자는 의욕에 찬 결심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공원관리 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산불이 났다고 하면 공원관리 당국은 물론

주민들도 전부 자진 참여하여 진화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울창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쌓이고 쌓이던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울수가 있었고 공원관리 당국의 순회수거활동의 지속과 여기에 병행해서 이곳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탐방객들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부분 쓰레기를 되가져 오고 있어 속리산국립공원이 영광스럽게도 전국제일의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던 산불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많던 쓰레기도 처리하게 되었다.

요즘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들도 쓰레기가 없는 것을 보고 감탄함은 물론 KBS방송국 취재반도 속리산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등반하여 보고와서 속리산은 참으로 자연보호가 잘 되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방송을 방영하기에 이르렀다.

속리산국립공원이 오늘과 같이 보호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은 공원관리당국과 국립공원협회의 일치 단합된 협력과 주민들의 자진참여로 인한 봉사적인 생활태도이며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보다높아진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협력은 기적을 낳는다는 진리를 실감한다.

이제 우리는 앞만보고 내닫지 말고, 주변을 살펴볼 때다. 심각한 식수난을 해결하여 맑은 물을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 한다.

나는 오늘도 협력은 기적을 낳는다는 진리를 간직하고 천연기념물인 망개나무 군락지를 발견, 보호하고 있고 자연보호 전국 제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등산길에 나서고 있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 「협력은 기적을 낳는다」고

[필자 : 본 협회 속리산지부장]